

# 정읍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본격 관리

### 서원 본래 모습·가치 보존하고 인지도 높이기 나서 선비 정신·풍류 문화 계승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정읍시가 지난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가치를 높여에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립이다. 선비정신 수련과 풍류 문화를 배우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거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성서원 인근 4만2492㎡ 부지에 세워진다.

선비문화수련원과 체험,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성서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 강좌,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무의 풍류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서원스테이 및 체험·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북도 등과 협의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등의 기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더불어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공유토록 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 가치가 특정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



정읍 무성서원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도포(유생복)를 착용하고 선비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 세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점을 잊지 않고 정읍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높여가는 노력에 발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삼양이노켄. <삼양그룹 제공>

## 삼양그룹 '화이트바이오' 사업 본격화

### 군산에 710억 투자 연 생산량 1만t 규모 생산공장 건설

삼양그룹이 '화이트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710억원을 투자해 군산에 연 생산량 1만t 규모의 이소소르비드 공장을 짓는다.

삼양그룹은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이소소르비드 공장 증설을 위해 지난 8일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양그룹의 화학사업 계열사인 삼양이노켄은 710억원을 들여 군산 자유무역지역 2만9000㎡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이소소르비드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이트 바이오는 식물 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화학제품, 바이오 연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 분야다.

삼양그룹이 2014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소소르비드는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다.

이소소르비드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은 내구성, 내열성, 투과성이 우수해 모바일 기기와 TV 등 전자제품 외장재, 스마트폰의 액정필름, 자동차 내장재, 식품 용기, 친환경 건축자재 등에 쓰인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이소소르비드는 삼양그룹이 보유한 식품과 화학 기술 융합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하는 만큼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로 이소소르비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노후 국가산단, 청년산단으로 탈바꿈

### 재생·구조 고도화 사업 병행...2024년까지 4300억 투입

익산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젊은 산단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권에 조성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국가산단에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300억원이 투입돼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고 노후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등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단지 내 공원, 유휴 공간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국가산단은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가로등·주차 시스템 등도 도입돼 청년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구축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정부의 환경개선 펀드사업을 추진할 민간개발 사업자로 세진산업을 유치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세진산업 부지에 4층 규모의 물류시설과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에는 총 960억원(국비 170억원, 민자 79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산업단지가 청년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군,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 '활기'

### 민선 7기 공약사업...2022년까지 총 300동 교체

순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초 총 4억 8000만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행랑채(사진) 300동을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황숙주 군수가 행랑채 철거를 공약사업으로 내건 이유는 행랑채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돼 있고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음에도 처리 비용 문제로 농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첫 사업으로 계획수량 75동 중 38동을 철거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일반지방 행랑채 80만원, 슬레이트지방 행랑채 180만원을 순수 군비로 보조한다. 다만 창고나 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랑채 철거 신청 대상은 33㎡ 이상이며, 분체 없이 흙물스럽게 방치돼 철거가 시급한 행랑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면적이 33㎡ 미만이라도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보조사업 대표자를 선임



해 여러 농가의 행랑채를 합산한 면적이 33㎡ 이상이고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행랑채 철거 사업은 농촌의 효율적 주거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클린 순창 실현,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남원시, 콤바인 등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

남원시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지대별 적기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집진기, 축조시비기 등 14종에 대해 34억원을 들여 영농단계별 적기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벼 2ha이상 재배 농가를 대상 50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은 최고 1500만

원, 벼 1ha이상 재배 농가를 대상 50마력 미만 트랙터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타 중소형기종은 기종별 사업비 기준단가의 50%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기계지원사업은 농업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적기 영농에 크게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창군, 음식문화 선도 농·식품 명인 발굴 나서

고창군은 지역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농·식품 명인 발굴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명인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자는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여부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고창군 농·식품 명인이 지정된다.

지정된 명인에게에는 명인 인증서와 인증 패 교부는 물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제 및 추천 등이 이뤄진다.

#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